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아프리카를 만나다



한상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이사)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질병의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바로 만연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대다수 아프리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평균 기대수명은 우리보다 20, 30년이나 짧은 47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이라면 간단하게 치료 가능한 병도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생명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1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명하고 계셨습니다.

아프리카미래재단과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랜 세월 공부하고 훈련하며 쌓아온 전문 지식과 기술로 높은 연봉과 사회적 명성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열악한 오지로 향하셨습니다.

특히 이재훈 선교사님의 간증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좋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힘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한 후, 앞에는 대학교수직과 고액 연봉이라는 화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께 드렸던 서약을 지키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나 지금도 마다가스카르의 척박한 땅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의료 사역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지난 60여 년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정말로 치열하게 몸과 마음을 다해 오직 나 자신의 커리어와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 백분의 일, 천분의 일도 쏟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뚜렷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나는 과연 진짜 크리스천인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호세아 13장의 말씀처럼,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고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미래재단을 통해 이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도와 재정으로, 비록 미약하나마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드리는 후원은 작고 부족하지만 그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좋은 땅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작은 씨앗이 선교사님들의 헌신된 손길을 통해 아프리카의 땅에서 열 배, 백 배, 천 배의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를 향한 이 작은 발걸음이, 저를 ‘가짜 크리스천’에서 ‘진짜 크리스천’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사랑하시듯, 저도 그 마음의 작은 조각이나마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삼진 사무총장, 한국 방문

4월 일 미국법인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는 한국 아프리카미래재단 한국본부를 방문, 한국본부 사무실 공간 이전 문제를 협의하고 돌아왔다. 이 문제는 김홍식 이사장 방문 후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미국법인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협의회는 최재길 이사장, 이종섭 부대표, 안숙희 부장, 황현룡 부장이 함께 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미국 이사회 보고와 현장 조사를 거쳐, 한미리더십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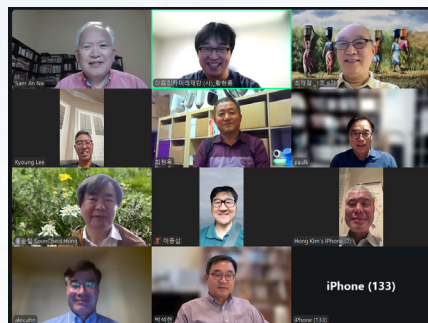
AFF 미국본부, 한국사무실 환경 개선 위해 협력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본부는 한국본부 사무실 공간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미국본부와 각 지부가 협력하여 40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했다. 미국본부에서는 아프리카 미래기금에서 10만불, 미국 서부본부와 아틀란타지부에서 각 5만불, 이사장 김홍식 장로와 이경호 아틀란타지부장이 각 4만불, 동부본부가 12,000불을 지원해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서부 본부는 8월 초 이사회의 결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 논의는 7월 17일 한미리더십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는데, 사무실 이전을 포함해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20주년 기념 선교대회 개최 카이로 근교에서 4월 17일부터 나흘간



아프리카미래재단 한국본부와 미국본부는 그동안 논의해 오던 설립 2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2027년 4월 19일부터 나흘간 이집트 가이로 근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에티오피아로 장소를 옮기도록 했는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집트 주최를 최종 확정했다. 이 선교대회는 저녁집회와 특강, 선교사들간의 친교 등이 진행되고, 이집트 피라미드와 최근 개관한 대박물관 등 1일 관광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참석하는 선교사들에게 항공비와 참가비를 지불하는 대신 본인들의 책임을 위해 1인당 부담금을 200불씩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 AFF GMMA 참여, AFF USA 지원

한국 AFF는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어바인 베델교회에서 개최된 2026 GMMA 컨퍼런스에 참여, 부스 설치와 최재길 이사장이 ‘아프리카 의료선교 경험과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주제로 분과강의를 인도하였다. GMMA컨퍼런스는 한미 의료선교회가 성장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의료선교기관이 되었는데, 격년 단위로 6월 말에 열리는 컨퍼런스를 통해 의료인과 전문기관, 그리고 선교 현장의 연결은 물론이고 의대와 간호대 학생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선교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의 장이 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한국에서는 최재길 이사장 부부, 홍민희 부대표, 황현룡 부장 등이 참여하였고, 미국본부에서 이들의 전시와 상담 등을 지원하였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이사들의 간담회를 25일 저녁, 김홍식 이사장 댁에서 가졌다.



우간다 에스라성경대, 백석대, 백석문화대와 교육 학술협력 MOU 체결 아프리카 지역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육협력 모델 구축



우간다 에스라성경대학교(총장 김세현 선교사)는 지난 7월 21일 백석대학교 본부동에서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와 교육·학술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국제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송기신 백석대 총장, 이경직 백석문화대 총장을 비롯해 강인한 교목부총장, 김범준 국제교류본부장, 최동성 국제교류처장과 김세현 에스라성경대 총장, 노미경 사모, 후원회장 제인출 한울교회 목사 등이 참석했다. 최동성 국

제교류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협정체결식에서는 강인한 교목부총장의 기도와 송기신 백석대 총장의 환영사, 이경직 백석문화대총장의 축사, 에스라성경대학교 김세현 총장의 인사말과 후원회장 제인출 목사의 격려사로 진행되었는데,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생·교수 교류 △공동 학술연구 △교육과정 개발 △온라인 교육 협력 △글로벌 리더 양성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날 협정식에서 백석대학교 송기신 총장은 “세 대학이 교육과 학술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백석문화대 이경직 총장은 “세 대학이 전문교육의 강점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국제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간다 에스라성경대학교 김세현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교수 교류와 공동 교육과정, 학술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ی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에스라성경대는 우간다 북부 리라에 위치한 대학으로, 성경학과 성서신학을 중심으로 유아 교육, ICT, 비즈니스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간다 에스라성경대, 백석대, 백석문화대와 교육 학술협력 MOU 체결 아프리카 지역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육협력 모델 구축



우간다 에스라성경대학교(총장 김세현 선교사)는 지난 7월 21일 백석대학교 본부동에서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와 교육·학술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국제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송기신 백석대 총장, 이경직 백석문화대 총장을 비롯해 강인한 교목부총장, 김범준 국제교류본부장, 최동성 국제교류처장과 김세현 에스라성경대 총장, 노미경 사모, 후원회장 제인출 한울교회 목사 등이 참석했다. 최동성 국

제교류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협정체결식에서는 강인한 교목부총장의 기도와 송기신 백석대 총장의 환영사, 이경직 백석문화대총장의 축사, 에스라성경대학교 김세현 총장의 인사말과 후원회장 제인출 목사의 격려사로 진행되었는데,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생·교수 교류 △공동 학술연구 △교육과정 개발 △온라인 교육 협력 △글로벌 리더 양성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날 협정식에서 백석대학교 송기신 총장은 “세 대학이 교육과 학술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백석문화대 이경직 총장은 “세 대학이 전문교육의 강점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국제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간다 에스라성경대학교 김세현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교수 교류와 공동 교육과정, 학술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에스라성경대는 우간다 북부 리라에 위치한 대학으로, 성경학과 성서신학을 중심으로 유아 교육, ICT, 비즈니스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집트 선교 소식

곽찬양 • 최노래

수단 난민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

1. 파송된 2명의 KCOC 대원이 Work permit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활동 정지 후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여러 돕는 사람과 관계자들을 통해 계속 학교를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게.

2. 희어져 추수할 때입니다. 좀 더 많은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한마음이 되어 주께 하듯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섬기게 하옵소서.

-누가회에서 소아과 치과 위주로 의료팀을 구성하여 가을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적절한 분들의 헌신과 팀 구성 등을 위해.

-8, 9월 즈음에 한국에서 공주용 선생님(영어 교사)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3. 곽찬양 최노래 사역자는 지금 미국을 방문해 자녀들도 만나고 교회와 단체 등을 돌며 AFS에 대해 나누고 펀드레이징과 동원

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4. NGO에서 학자금을 후원하던 몇몇의 학생들이 아직 재정 후원 매칭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5. 곽찬양 최노래 사역자가 해외 출타로 인해서, 학교에 없는 상황에서 임 교수님 내외분과 청년 2명 샘들(박수환, 김연옥 샘)이 중심이 되어 6월 15일 신학기 시작 (1-9학년 총 330명 학생들, 20명 교사와 직원) 주님! 학생과 교사들이 영적, 지적, 육체적으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6. 이집트 내의 수단 난민의 거주증 문제.

-감사하게도 주임교사인 Waat의 부인이 임신 4개월에 경찰에 거주증 문제로 Report되어 남수단으로 돌아갔는데 새 여권을 가지고 다시 카이로 공항에 입국해서 남편과 4살, 6살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Waat는 감사하게도 비자가 연장되어 거주증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사회 교사 마이클이 역시 거주증 문제로 구금되어 출국당할 위기입니다. 이를 위해 수단 학교 교사 한국 스테프 및 마이클 출석 교회 등이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학생 중 Nyarout (4학년 여아)의 비타민 D 결핍증으로 인한, O자형 다리와 한쪽 다리의 비대칭으로 인해,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보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수술과 수술 비용을 위해서





8. 작년 12월에, 임중호 교수님의 박미선 사모님의 다쳤던 발이 아직도 온전히 낫지 않아서 불편한 상태입니다.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후원자님들의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후원 교회와 후원 단체들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는 아프리카미래재단 소속으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수단 난민 사역과 치과 진료 사역을 주로 하고 있는 곽찬양, 최노래입니다.

금번에 아미재 서부 본부에서 저희 사역을 위해 현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수단 난민 교육센터를 새로 개설하고 재정적으로 많이 긴급한 상황에서 보내 주신 현금이 긴요히 사용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많이 줄주리고 있는 수단 친구들의 점심 무료 급식과 학교 렌트비 등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친구들의 예배하는 예쁜 사진과 비디오 등을 좀 보내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이집트 내의 카이로에 위치한, 수단난민학교인 ‘아프리카 미래학교’는 19명의 영어, 아랍어가 가능한 대학 졸업의 신실한 기독교인 수단 교사들과 1명의 기독교인 수단 직원(청소 및 식당 담당)이 1학년부터 9학년(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13개 교실에, 총 330명의 수단 학생들이 무료급식(오전 우유 1팩, 점심 샌드위치)을 공급받으며 영어로 배우는 남수단 정식 커리큘럼(기독교 교육인 성경 과목 포함)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남아공 선교 소식

김경환 • 송선아 선교사

존경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곳 케이프타운은 이제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거센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져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동역자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내주시는 기도와 격려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맡겨진 소임 또한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역의 은혜와 앞으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신학교 사역: 이번 학기 신학교 강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며 영적·지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도소 사역: 막힌 답을 허무시는 주님의 은혜로 교도소 사역 또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신학교가 방학을 맞이합니다. 한 학기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국 방문: 18개월 만인 6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국을 방



문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 중 진행될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사역을 위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의 안전: 저희 부부가 고국을 방문하는 동안, 남아공에 남겨진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고 평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국에 머무는 동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귀한 동역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케이프타운은 계절상 깊은 겨울로 접어들어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곳 남아공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분들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동역 덕분에 상반 기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현지 신학교는 방학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이용해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임플란트)를 받기 위해 잠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기간이 영육 간의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간다 선교 소식

김세현 • 노미정 선교사

“어릴 때부터 성경을 먹이자, 가르치자, 읽게 하자.”

1. 시간이 그 어떤 힘도 막을 수 없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고 싶고,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히고 싶은 마음으로 “제1회 성경 통독 세미나”를 몇 년 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으로 인해 이 사실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8월 24-28일까지 4박5일간 “제2회 성경 통독 세미나”를 위한 학생 모집을 합니다.

2. 지난번 1회에서는 신약을 전체 다 읽는 것으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을 도전해 보려 합니다. 우리들도 이미 경험을 하였듯이 혼자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 간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또한 환경을 계속 방해하여 멈추게 한 일이 한두번도 아닌 줄 압니다. 때로는 어렵고 딱딱해 보인다고 해도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3. 아프리카에서는 어른들도 개인 성경을 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프리카 선교지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린 주일 학생들이 성경을 가진다는 것은 더 엄두도 못내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성경 1권이 있다면 식구들이 돌려서 읽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4. 수년 전부터 김선교사는 아프리카 교회와 교인들의 성경에 관한 현실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부족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병행하여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나누어 줄 때 받는 성도들은 서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서서 받으십니까?” 하면서 무릎을 꿇고 성경책 선물을 손에 받아 들고 “이 성경은 오늘부터 우리집 가보



1호”라고 소리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5. 이런 귀한 기회이지만 모두에게 다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교회 출석하는 학생들 가운데 영어를 잘 알아듣고 말할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그래도 고학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 4학년 이상중에서 학생 선발을 합니다. 이번에도 50명을 뽑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경쟁이 셉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도 옆 자리에 앉아 성경을 읽으려는 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6. 김 선교사는 4박5일간의 성경 통독 세미나를 다 마친 어린이교회 학생들에게는 영어 성경을 선물로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뿐 아니라 방학이라 기숙사에서 돌아온 이들 학생들이 그냥 집안에 있어도 여전히 하루 1번의 식사마저도 그리 편히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 두 번의 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7.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여러분! 먼저 기간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한 성경 통독 기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찬양 속에, 통독 가운데, 식사 시간에, 교제하며 다양한 채널로 이들 어린 심령에 성령의 기쁨부으심이 있도록 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글로벌의료선교대회(GMMA) 참가



이사장 최재걸
아프리카미래재단(한국) 이사장

2026년 6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엘바인 베델교회에서 열린 GMMA 대회에 한국 본부에서 최재걸 이사장, 홍민희 부대표, 안숙이 부장과 이영희 권사가 참가하였다. 6월 25일 늦은 오후 LA에 도착한 후, 미국 법인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님께서 따뜻한 저녁 식사로 맞아주셨다.

이후 미국법인 김홍식 이사장님 댁을 방문해 차담을 나누었는데, 회복 중인 조심스러운 상황임에도 직접 만나 뵙고 여전한 유머와 힘 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시간을 보냈다. 미주법인의 한상규, 카니 한 이사님 부부께서는 머무는 동안 우리 팀을 극진히 섬겨 주시며 깊고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

2년마다 열리는 이번 대회는 40여 명의 발표자, 28개 부스 참가자 및 6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의 주제는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시편 96:3)이었는데 땅끝에서 의료 선교에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고, 의료선교를 하는 여러 개인과 단체들의 현장 체험을 나누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다. 2024년 대회는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여 아쉬웠었는데 이번엔 처음 참가하는 것이라 많은 기대를 하였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참여한 것이 인상 깊었고 감사했는데, 미국 전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주



님을 찾으며 선교에 헌신하려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 운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것이 특별히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27일 토요일 오후에는 최재걸 이사장의 위크숍(선택강의)이 진행되었는데, 약 20여 명이 참석하여 배정된 강의실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대회가 열리는 이틀 동안 우리 재단의 부스를 운영하며 아미재 사역을 소개했다. 부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LA지부 석소정 이사님, 시카고의 채영광 교수님, 그리고 GMMA 관계자들인 피터 정, 메리 로, 데이빗 최와도 뜻깊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아미재 미국법인의 이사님들께서 열심히 많은 방문자들을 응대해 주셨고 서울에서 참가한 본부 스태프와 이집트에서 참여한 선교사를 격려해주셨다.

부스로 참가한 단체들을 만나서 교류하였는데 이들 단체들을 알아가면서 아미재와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과 더 깊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선교대회에 참여하여 아미재를 더 널리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회가 끝나고 베델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고, 짧은 시간이지만 김한요 담임목사님과 만나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기독교사치과의사대회(ICMDA) 참가

아프리카미래재단 한국 본부

세계기독교사치과의사대회(ICMDA)가 132개국에서 1500 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제주 중문 ICC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4년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사 및 치과의사가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대해서 나누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의 주제성구는 이사야 58:12로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움'(Building God's Kingdom amongst the Broken)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사회적 정의, 다문화 상황에서 의료선교, 성경적 전인치유, 고통과 질병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의료선교의 방법과 전략, 생명윤리와 동성애, AI 등 포스트모던 세상에서 성경적 가치관 정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대회 기간 동안 부스를 운영하며 재단의 사역을 홍보하였고,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과 사역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언어와 생김새, 피부 색깔과 문화는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확인한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이 대회를 운영하는데 행정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진행하는 위치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대회를 위해 헌신하였다. 우리 재단의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1500여 명이나 되는 참가자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서



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은혜임을 고백한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의 사역과 기록 문제



나삼진 목사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사무총장)

나는 지난해 두 선교사의 선교 사역 문집을 전달받았다. 그들은 내가 공부한 신학대학원의 선배들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었다. 각 선교사가 40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땀 흘린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기념문집을 받고 차근차근 읽으며, 멀리서 그들의 선교사역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헌신적으로 40년 세월을 살았던 것을 보며 진한 감동을 받았다.

첫 번째 선교사는 인도네시아와 선교본부, 그리고 러시아에서 40년 동안 사역한 선교사의 40년 기념 문집이었다. 그는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선교학회를 조직해 열심히 선교사 훈련을 하고, 대학원 졸업과 함께 태국 선교사로 허입되었지만, 비자를 받지 못해 인도네시아로 파송되어 16년 동안 탁월한 사역을 했다. 그의 지도력과 원만한 인격에 선교본부에 총무(훗날 본부장)에 취임, 세 팀 9년 사역을 한 후 다시 러시아의 선교사로 다시 파송받아 12년 사역을 하고 무려 40년 사역을 마치고 정년으로 은퇴한 분이다.

그의 선교 40주년 기념문집은 3부에 걸쳐 그의 사역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1부는 부부의 기록으로서 선교를 준비시키는 손길, 인도네시아 선교, 선교본부 사역, 러시아 선교, 선교 칼럼, 시인인 부인 선교사의 선교 에세이와 시로 모두 일곱 장을 구성했다. 제2부는 학자들이 그의 선교와 사역에 관한 논문을 다루었고, 제3부에서는 '내가 아는 선교사'를 주제로 지인들과 선교지 사역자들의 회고기를 다루었다. 신국판 520면에 달하는 책에 그의 인생과 선교가 오롯이 담겨 있다.

두 번째 선교사는 시인이며 평론가로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문학석사를 한 후 선교 훈련을 받고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28년 동안 사역했던 분이다. 선교하는 동안 페네니쉬 신문을 발간하고, 현지 지도자를 훈련하며 귀한 사역을 했다. 그의 학자적 능력을 인정받아 아세아신학

대학 선교학 교수로 임명되면서 선교지를 떠났지만, 지금까지 선교 전략회의를 통해 선교와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문집은 학자형 선교사로서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한 선교사의 고회를 맞아 펴낸 성역 45주년 기념문집이었다. 축하와 에세이, 목양 단상, 월드 미션, 기독교교육과 현장, 문학과 서평, 가족과 고향 친구, 고백록 강의록 설교 화보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그는 시인으로서는 70세 고회에 맞추어 여러 권의 시집과 평론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형 선교사이다.

두 선교사의 두 문집은 각각 특징이 있었다. 첫 번째 문집은 자신의 선교 회고기가 주를 이루고 부인 선교사의 단상과 시들이 사이 사이 꽃피고 있고, 두 번째 문집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의 선교와 문학세계였다. 각 선교사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선교사들이 평생 선교지에서 사역하면 마칠 때는 선교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가 책으로 묶여지는 경우도 있다. 선교사들이 글 쓰는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사역이 빛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생애에 걸친 사역을 정리함으로써 다른 선교사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혹은 선교지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누가는 2부작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역사가이자 신학자였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교훈을 종합적으로 만날 수 있듯이, 우리는 누가를 통해 그 역사가 초대교회까지 확장되는 것을 본다. 한 시대를 충성스럽게 살아온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으로 남기면 뒤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의 길이 된다. 선교사들의 기록은 자신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훗날 선교지에서 찾을 그들 선교지의 역사이기도 하다.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 (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250)

714-732-1484 (미국) +82) 31-342-9182 (한국)

✉ aff@africaff.org 🌐 www.africaffusa.org

🗣️ 아프리카미래재단

📷 africafuturefoundation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Zelle를 보내실 때

- 이메일 : africaffusa@gmail.com

- Africa Future Foundation

☐ 송금하실 때 (아틀란타지부 전용)

- 은행 : Chase Bank

- 계좌번호 : 462352621

- Routing 번호 : 322271627

선한 청지기들 2026. 4. 1 - 6. 30 / 재정 보고

헌금자 명단

김명숙 김명옥 김은식 김응원 김인용 김혜미 김홍식/김정미 나삼진 남일우 남정희 박대호 박광원 백형순 석소정/김진영 송은석/이원희 송영송영애 송채원 신정수 오윤희 이경호 이승숙 이홍철 장국현 정진철 최형득 태승남 한창훈 황길남/황로미 허지국/허영화 Andrew/Grace Bae, Tae Bahn, Joy Kim, Eun S. Kim, Ki Han, Kani & Sang Kyou Han, Nate C.J. Kim, Dae S. Lee, Ester Lee, Michelle Lim, Woo/Min Sun Lim, Simon Paek, Michael Yang, Fidelity Charitable, First Morningstar Foundation, Livingstone Home Health, Morgan Stanley Gift, Oh Family Foundation, Park Family Foundation, Priority Hospice, Schwab Charitable, Sun Wakyong Suh, Key Seoung Yoon, Yang's Painting, Young's Management(Myung, Don)
고신대간호대동문회, 새벽이슬교회, 신일장로교회여선교회, 예수소망교회, 오렌지카운티살롬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아틀란타 지부: 신약국(신사라), 유우영, 장유미, SDS Green(박형욱), Hope Family Medicine(이경호), JJ물리치료(정정훈), Exalting Christ Church of Atlanta,

* 혹시 이름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AFF사무총장 (나삼진 목사, 714-732-148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으로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기 결산

수입부

4월	3,300
5월	106,600
6월	11,650
수입계	121,550

지출부

사업비	
곽찬양 선교사(이집트)	5,000
김경환 선교사(남아공)	1,000
강병훈(남아공)	3,000
짐바브웨 ODA사업비	50,000
짐바브웨 (지정)	6,000
소계	65,000

행정비

사무비	194.70
한국방문	1,495.33
우편료	873.19
회보 출판비	2,477.06
급여	2,743.50
세금	600
CPA	1,000
홈페이지 연관리비	346.83
송금수수료	90
한국방문단 접대비	396.41
기타	300
소계	10,517.02
계	75,517.02

수입부 아틀란타 지부

4월	4,300
5월	4,300
6월	4,300
합계	12,900

지출부 아틀란타 지부

부냐끼리병원 운영비(2개월)	4,720
합계	4,720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www.africaffusa.org

